



제주 아동학대 신고자 30%는 아동 본인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도내 의심 신고 779건… 아동학대 판단은 420건
신고자 유형은 아동·부모·초중고교 직원 순 많아

지난 한 해 제주 지역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770여 건 중에서 아동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 전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242건(일반 상담, 동일 신고 등 포함)

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나타났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발생 사례가 82.9%로 가장 높았다.

제주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총 779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420건이었다.

제주 지역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152건)보다 비신고의무자(627건)에 의한 신고가 더 많았다. 비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이 80.5%로 전국 평균(78.5%)을 웃돌았다.

신고의무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 93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13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건,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8건, 의료인·의료기사 5건 순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는 아동 본인 241건, 부모 220건, 이웃·친구 48건, 기타 45건, 낯선 사람 23건, 형제자매 21건 순이다.

전국적으로 아동 본인(2020년 14%→ 2024년 28%)과 부모에 의한 신고(2020년 16%→ 2024년 34%)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아동 본인의 신고가 전체의 30.9%를 차지했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28.2%로 뒤를 이었다.

추계 아동 인구(0~17세) 기준 제주 피해 아동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은 3.94%로 전국 평균(3.57%)을 상회했다. 17개 시·도 피해 아동 발견율은 최저 1.90%, 최고 5.41%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성산일출봉 해안서 스노클링하던 60대 숨져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가 숨졌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성산일출봉 아래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A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조대와 해경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해경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명칭 달라 구조 시 혼선”

제주해경, 한림항 구역 세분화 작업 완료

제주해경이 한림항에서 사고 발생 시 구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역별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한 한림항 어선부두 구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림항은 약 300척 이상의 어선과 도항선, 화물선이 입·출항하는 곳으로 복잡한 어선부두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따랐다. 또 어민들마다 사용하는 부두 명칭이 달라 어선 부두에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구조 세력 출동

지역 및 혼동 위험성이 존재하면서 통일된 위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해경은 지난달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서 항만시설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 8월에 각 구역별 표지판 설치와 구역 표시 페인트 마킹 작업을 실시했다.

이덕문 제주해양경찰서 한림과 출소장은 “한림항 어선부두 명칭 문제는 불편 해소뿐 아니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문제점을 찾아 유관기관 간 협업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제주소방, APEC 中 企장관회의 안전 만전

1~5일 ICC제주 개최… 상황실 설치·24시간 신속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소방안전본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비상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9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마련되며, 행사에는 중소기업 담당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관회의를 비롯해 실무그룹회의, 워크숍 등 다양한 공식 행사와 연계행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도소방안전본부는 회의 기간에 행사장 내 소방상황실(CP)을 설치해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지휘버스, 펌프차, 구급차, 생화학 대응차 등 장비 5대와 인력 10여 명을 행사장 인근에 전진 배치한다. 특

히 서귀포소방서는 24시간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특수구급차를 현장에 상시 배치하고, 환자 발생 시 도청 보건부와 협력해 행사장 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지원한다. 도내 6개 협력병원(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으로의 신속한 이송·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 발생 시에는 한라매(소방헬기)를 활용한 이송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소방안전본부는 회의와 연계해 진행되는 '제주식품대전 with 맥주축제' (9월 5~7일) 등의 행사도 별도 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매일올레시장 트럭 돌진사고

80대 여성 치료 중 사망

지난달 28일 발생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해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5분쯤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A씨가 몰던 1t 트럭이 노점상 2명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와 80대 여성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C씨는 병원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당시 트럭 운전자 A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앞에 갑자기 무언가가 나타나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다시 돌아온 벌초의 계절 31일 제주시 연동 가족공동묘지에서 후손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벌초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무면허 침 시술 70대 징역 2년 4개월 실형

수년간 전국을 돌며 중증환자 등을 속여 불법으로 침을 시술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A씨를 돕고 범행을 방조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9일 선고에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한의사

면허 없이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생 병을 못 고치는 사람도 내가 고칠 수 있다”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는 등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히 침 시술 과정에서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복통이나 염증 발생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탁기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nyou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작업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